

광산구 보건소, 5월 새 등지로 이전

하남3지구 신청사 다음달 초 완공 진료·물리·한방실·선별진료소... 시민 건강권·공공의료체계 구축

광주 광산구가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를 이전한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하남3지구 보건소 신청사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 초 보건소를 이전한다. 광산구 보건소는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된 이후 35년 동안 광산구청사 내에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다양한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표적 신도

심인 하남3지구로 보건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2021년 7월 시작한 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사는 현재 공정을 90%로, 내달 초 완공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새 보건소는 진료, 예방, 물리, 한방실,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보건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홀과 교육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하남3지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광산구 보건소는 단순히 보건소를 옮기는 것만이 아닌 권역별 균형을 맞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산구는 우선 35년간 등지를 틀었던 기존 보건소에 공공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정보 건지소'를 설치해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혼란 등 송정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존 광산구 보건소 1일 민원 건수는 하루 평균 160건으로, 건강진단결과서(38.8%), 임상병리 검사외의(12.5%), 내과진료(9.9%) 순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완권이 38%, 월곡권이 25%, 송정권이 17% 순이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당, 커피숍 등에서 일할 때 필요한 서류로, 수완, 하남, 첨단에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수요가 많다는 분석이다.

또 현 보건소와 인접한 송정동, 어룡동, 도산동 등은 전체 내과진료 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송정보건지소에 내과진료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체성분측정 및 분석,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보건소의 이전을 시민의 변화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넓고, 두터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기존 보건소를 이용하신 송정권, 도산권 시민의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8일 옛 광산경찰서 부지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

'옛 광산경찰서' 5·18사적지 지정 현장 행보

광산구의회 "여성운동가들 고초 겪었던 현장...시에 지속 요청"

광산구의회가 옛 광산경찰서 부지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옛 광산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여성들이 집단 유치되었던 장소로, 2005년 경찰서 청사가 운수동으로 이전된 후 현재는 송정동에 터만 남아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산구의회 소속 여성위원의 주도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사적지 지정의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광주지역 내 공식 지정된 '5·18 사적지'는 총 29곳이며, 이중 광산구 소재지는 전무한 상황

으로 최근 광산구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군의 집결지였던 광주송정역과 함께 옛 광산경찰서 부지를 '5·18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다.

윤혜영 의원은 "옛 광산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던 역사적 현장으로 이번 활동이 '세계 여성의 날'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깊다"며 "오월 정신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올바르게 계승·발전되기 위해 '5·18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광산구, 5월 31일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광산구 주민, 구 소재 기관,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년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총 12억 원 규모로 ▲생활밀착형 마을현안 사업인 일반참여형 ▲구 전체를 범위로 하는 광역사업인 구정참여형 ▲정년 정책과 관련된 청년참여형 등 3개 분야로 제안받는다.

응모는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광산구 기획조정실,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소관 부서 담당자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선정한다. 이어 광산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광산구 본예산으로 편성된다.

광산구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84건의 요구 사업 중 47건 11억 원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4월 시민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지역금융기관 '맞손'...민생경제 회복

24억 원 규모 소상공인 '무담보' 특례보증 대출 지원



박병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광산구청장이 지난 10일 구청에서 열린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광주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24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지난 10일 구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과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와 각 금융기관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담보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총대출 규모는 24억 원으로, 대상은 광산구 사업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1인당 2000만 원 한도 내로 가능하며, 광산구가 1년간 4.5%의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13일부터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 3개 금융기관과 광주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와 지역금융기관의 연대·협력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2012년부터 매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까지 구비 9억9000만 원을 출연, 총 155억 원의 특례보증금으로 소상공인 899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영선 광산구의원 발의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산교육발전협의회'의 협의 사항 중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여론 수렴, 명문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지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협의회 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특위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김영선 의원은 "광산구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초·중·고 과밀학급 문제 등 교육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교육 정책들이 발굴돼 '교육도시 광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중증장애인 건강보전 집중관리 서비스 지원

광주 광산구는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해 재활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보전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는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보전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의료·복지시설의 의료 또는 의료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대상자 선정, 상담과 욕구·환경조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재활과 복

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별로 입구 경사로 설치 등 환경개선, 1대 1 방문재활, 만성질환 관리,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병원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전 집중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발굴과 맞춤형 사례관리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주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업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으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망 상담해드립니다.

갑을농원 |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최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 (매곡주·정종화)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 **승선문의** |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 061-834-3434 |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